

원효의 『십문화쟁론』 「종자화쟁문」 내용 추정

김영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국문 초록

본고에서 논자는 오늘날 온전한 형태로 전하지 않는 원효의 『십문화쟁문』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추정해 보았다. 균여의 『석화엄교분기원통초』와 견등의 『대승기신론동이약집』을 보면 「종자화쟁문」의 핵심내용이 인용되어 있고, 『성유식론』을 검토해 보면 「종자화쟁문」에 등장한 것과 같은 내용의 논쟁이 등장하고 있어서, 논자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소위 「입론」 부분에서, 총3설은 자신의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제1본유설에서는 종자에 ‘본유종자’라는 것만 있고, 혼습에 의해서 종자가 증장(增長)될 뿐이라고 본다. 제2신혼설에서는 종자에 ‘신혼종자’라는 것만 있고, 먼 옛날부터 이어진 혼습작용에 의해서 비로소 종자가 성취된다고 한다. 또한, 제3병유설에서는 종자에 본유종자와 신혼종자가 모두 있다고 본다.

소위 「논란」 부분에서는 총3설이 논란을 벌이는데, 여기에서는 공격(논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혼설은 본유설에 대해서 혼습으로 종자를 증장시키기만 하면 전7식과 제8식은 서로 인연이 될 수 없게 된다고 하고, 본유설은 신혼설에 대해서 종자가 신혼종자뿐이라면 무루종자는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병유설은 신혼설에 대해서 종자에는 신혼종자뿐 아니라 본유종자도 있다고 한다.

소위 「평결」 부분에서는, 원효가 본유설, 신혼설, 병유설 등 3설에 대해서 ‘모두

옳다'라는 판정을 내린다. 왜냐하면, '본성을 따라서 결과를 이루는 문[從性成果之門]에 의하면 본유설이 옳고,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作因受果之門]에 의하면 병유설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제어 : 원효, 화쟁사상, 『십문화쟁론』, 「종자화쟁문」, 본유설, 신훈설, 병유설

I. 머리말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중에서, 한국을 대표할만한 사상가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많은 학자들은 ‘원효(元曉, 617~686)’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원효가 당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중관사상,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등 인도대승불교학의 여러 분야에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상들을 관통하는 ‘화쟁사상’이란 독특한 사상을 정립하기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해서는 『십문화쟁문』에서 뚜렷하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서, 이 저서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의 연구는 1937년에 조명기가 『십문화쟁론』이 인용문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같은 해에 해인사에서 이 저서의 일부가 발견되자, 최범술은 그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였다.¹⁾

1977년 이종익은 원효의 저서들을 통하여 『십문화쟁론』의 ‘10문’을 복원하려는 작업을 시작하였고,²⁾ 이후 많은 학자들이 연구성과를 쏟아내었다.³⁾ 우리는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10문’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⁴⁾ 그 중에서도 「공유화쟁문」, 「불성화쟁문」, 「불신화쟁문」 등 3문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⁵⁾

1) 화쟁사상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김영일(2019: 23-31)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2) 이종익 2002, 229-272.

3) 김운학 1978, 177; 이만용 1983, 105-125; 오범안 1989, 86-108.

4) 『십문화쟁론』의 ‘십문(十門)’에 대해서 3가지 설이 있다. 조명기(1937: 31)는 의미상 ‘여러 문[多門]’이라고 해석하였고, 이종익(2002: 238)은 글자 그대로 ‘10문[十門]’이라고 해석하였으며, 고영섭(2007: 149-151)은 15가지 내지 16가지 문으로 보고 있다.

5) 김영일 2012; 김영일 2013; 김영일 2015.

본고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십문화쟁론』의 1개문으로 추정되는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⁶⁾ 「종자화쟁문」은 해인사에서 발견된 『십문화쟁론』의 잔간에도 없고,⁷⁾ 이종익이 추정한 총10문에도 빠져있다.⁸⁾ 하지만, 『석원통초』와 『대승기신론동이약집(이하 ‘동이약집’)』에 일부가 분명히 인용되어 있으며, 박태원도 이 점을 소개한 적이 있다.⁹⁾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논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논자는 200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까지는 『십문화쟁론』을 중심으로 화쟁사상을 연구하였지만, 앞으로는 원효의 현존본 전체에서 ‘화쟁사례’를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원효사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¹⁰⁾

이러한 연구방법에 의하여, 논자는 원효의 현존본에 남아있는 67개의 ‘화쟁사례’를 분석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원효는 제설을 화쟁할 때에 일반적으로 [입론]-[논란]-[평결] 순서로 논의하고 있다.¹¹⁾ 이러한 논자의 연구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에서 별다른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논자는 그 결과를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추정하려는 본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종자화쟁문」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유식론』의 내용을 자세히 음미하고자 한다. 『성유식론』은 원효가 활동한 동아시아에서 유식사상에 관한 대표적인 논서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석원통초』와 『동이약집』에 등장한 것과 같은 내용의 논쟁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유식론』과 함께,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데 반드시 살펴보

6) 원효가 어찌하여 『십문화쟁론』에서 「종자화쟁문」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논자가 보기에는, 원효가 「공유화쟁문」에서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의 논쟁을 다루고, 「불성화쟁문」에서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의 논쟁을 다룬 것으로 보아서, 「종자화쟁문」에서는 유식사상 안에서 대표적인 논쟁 중의 하나를 선별하여 논의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다.

7) 해인사에서 발견된 총5매 중에서, 제9·10매는 공유에 관한 화쟁이고, 제15매·16매는 불성에 관한 화쟁이며, 제31매는 『이장의』의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십문화쟁론』의 잔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8) 이종익(2002: 238)이 추정한 10개문은 三乘一乘和諍門, 空有異執和諍門, 佛性有無和諍門, 人法異執和諍門, 三性異執和諍門, 五性成佛和諍門, 二障異義和諍門, 涅槃異義和諍門, 佛身異義和諍門, 佛性異義和諍門 등이다.

9) 박태원 2013, 82-90.

10) 김영일 2008. 이 논문은 논자의 박사학위논문이고, 이후 원효의 화쟁사상과 관련된 논문들을 추가하여 2019년에 저서로 출간한 바 있다. 김영일 2019 참고.

11) 김영일 2019, 39-103.

아야 할 것이, 균여의 『석원통초』와 견등의 『동이약집』이다. 여기에는 원효가 「종자화쟁문」에서 제설을 화쟁하면서 가장 강조한 핵심부분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거나 혹은 나름대로 요약해서 인용한 문장들이 있다. 논자는 이러한 저서들과 함께 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경론과 현대학자들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II. 소위 ‘[입론]’ 부분

논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원효는 [입론]에서 각설의 입장을 차례대로 제시하는데, 각설의 기본입장을 선언하고 나서, 그 주장을 증명해줄만한 경전이나 논전을 제시하고 있다.¹²⁾ 우리는 「종자화쟁문」의 소위 ‘[입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유식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¹³⁾ 초능식변의 양상을 설명하는 도중에 원인으로서의 체성을 밝히는 인상문(因相門)에서 ‘종자(種子)에 관한 논쟁’이 등장한다.

1. 제1본유설

제1설은 본유설인데,¹⁴⁾ 이 설은 호월(護月, Candrapāla) 논사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유식론』에서는 호월 논자가 주장하였다는 본유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일체 종자는 모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지, 혼습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견해가 있다. 혼습력으로 인하여 다만 증장할 뿐이라는 것이다.¹⁵⁾

12) 김영일 2019, 57-76.

13) 『성유식론(成唯識論, Vijñaptimātratāsiddhi-śāstra)』은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Triṃśikā-vijñaptimātratā)』에 대한 십대논사(十大論師)의 주석서를, 현장(玄奘)이 호법(護法)의 학설을 중심으로 번역한 논서이다.

14) 『석원통초』와 『동이약집』의 인용문에는 신혼설, 본유설, 병유설의 순서로 등장하지만, 이것은 「종자화쟁문」의 [평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론]에서는 얼마든지 그 순서가 다를 수 있다. 본 논쟁은 유식사상 내부의 논쟁이고, 그 논쟁을 다루고 있는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논서인 『성유식론』에서의 순서가 본유설, 신혼설, 병유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자화쟁문」의 [입론]부분에서는 본유설, 신혼설, 병유설의 순서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성유식론』(I.31, 8a20-22): 此中, 有義, 一切種子, 皆本性有, 不從熏生. 由熏習力, 但可增長.

여기에서, 우리는 본유설의 기본입장을 알 수 있다. 종자에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본유종자’라는 것만 있고, 훈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훈종자’라는 것은 없는데, 다만, 훈습에 의해서 종자가 증장(增長)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자에는 유루종자와 무루종자가 모두 포함되는데,¹⁶⁾ 훈습이 종자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하지는 않고, 다만 종자를 증장시키는 활동만을 한다는 것이다.¹⁷⁾

본유설의 입장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뇌야연기설에서 ‘인과의 뜻(因果義)’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8식에서의 종자(種子)가 원인이 되고 전7식에서의 현행(現行)이 결과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7식의 현행이 원인이 되고 제8식의 종자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본유설은 ‘종자가 현행을 발생시킨다’는 전자의 ‘인과의 뜻’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이는 경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모든 유정은 먼 옛날부터[無始時來] 갖가지 계(界)가 있다. 비유하면 악차(惡次) 열매가 쌓여 있는 것과 같이 본래부터 존재한다.”¹⁸⁾ 여기서 계(界)는 종자(種子)의 다른 명칭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먼 옛날부터[無始時來], 계(界)는 일체법 등의 의지처이다”라고 한다. 여기서 계(界)는 원인(因)의 뜻이다. …… 중략 …… ㉣또한, 모든 유정은 이미 본래 5종성(五種姓)의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¹⁹⁾ 그러므로 반드시 본래부터 존재하는 종자가 있으며, 훈습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²⁰⁾
- ② 유가론에서 역시 말하였다. ㉠“모든 종자의 자체는 먼 옛날부터 체성이 비록 본유(本有)이지만, 잡염과 청정한 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훈습된다.”²¹⁾ ㉢(또한) 모든 유정의 무리 중에서 먼 옛날부터 반열반법(般涅槃法)이 있는 사람은 일체 종자가 모두 다 갖

16) 『성유식론』(T.31, 8b04-05): 由此等證, 無漏種子, 法爾本有, 不從熏生. 有漏亦應, 法爾有種. 由熏增長, 不別熏生.
 17) 한편, ‘어찌하여 본유설은 훈습이 새로운 종자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만약 본유 종자의 현행으로 신훈종자가 훈습되어 발생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유식론』(T.31, 8b05-06): 由熏增長, 不別熏生. 如是建立, 因果不亂.
 18)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권2말에 의하면, 『대승장엄경론』에서도 『무진의경(無盡意經)』이라는 명칭으로 이 경전을 인용하고 있다.
 19) 『입능가경(入楞伽經)』(T.16, 526c).
 20) 『성유식론』(T.31, 8a22-8b02): 如契經說. 一切有情, 無始時來, 有種種界. 如惡又聚, 法爾而有. 界即種子, 差別名故. 又契經說, 無始時來界, 一切法等依. 界是因義. … 中略 … 又諸有情, 既說本有, 五種性別. 故應定有, 法爾種子, 不由熏生.
 21) 『유가사지론』(T.30, 284b).

추었으며, 반열반법이 없는 사람은 곧 3가지 보리종자가²²⁾ 없다고 말한다.²³⁾ 이와 같은 문장으로 증명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 중략 …… ㉔또한 유가론에서 말하였다. “지옥에서 3가지 무루근(無漏根)을 성취하는데, 이것은 종자이지 현행이 아니다.”²⁴⁾ ㉕또한, 먼 옛날부터 전전(展轉)히 전래하여 본래부터 존재하는 본성에 안주하는 종성[本性住姓]이라고²⁵⁾ 말한다.²⁶⁾

여기에서 본유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㉑에서는 경전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㉒와 ㉓의 계(界)는 모두 ‘종자(種子)’로 해석할 수 있고, ㉔에서 모든 유정은 본래 5가지 ‘종성(種性)’의 차별을 가지고 있다고²⁷⁾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경전에서 이 종자와 종성이 ‘먼 옛날부터’ 혹은 ‘본래부터’ 있다고 하는데, 이점을 바로 본유설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㉕에서는 논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유가사지론』의 말씀이다. ㉒와 ㉓는 본유종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㉓에서는 반열반법의 유무와 보리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㉔에서는 지옥에서 성취한 3가지 무루근이 종자라고 말함으로써, 본유종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본유설의 논거임을 알 수 있다.

2. 제2신힌설

제2설은 신힌설인데, 이설은 난타(難陀, Nanda) 논사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유식론』에서는 난타 논사가 주장하였다고 하는 신힌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종자는 모두 혼습을 받아서 생겨난다는 견해가 있다. 소훈(所熏)과 능훈(能熏)이 모두 먼

22) 3가지 보리종자는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의 무루종자를 말한다.

23) 『유가사지론』(T.30, 284a-b).

24) 『유가사지론』(T.30, 615a).

25) 『유가사지론』(T.30, 478c); 『보살지지경』(T.30, 888b); 『보살선계경』(T.30, 962c).

26) 『성유식론』(T.31, 8a25-8b03): 瑜伽亦說. 諸種子體, 無始時來, 性雖本有. 而由染淨, 新所熏發. 諸有情類, 無始時來, 若般涅槃法者, 一切種子, 皆悉具足, 不般涅槃法者, 便闕三種菩提種子. 如是等文, 誠證非一. … 中略 … 又瑜伽說, 地獄成就, 三無漏根, 是種非現. 又從無始, 展轉傳來, 法爾所得, 本性住性.

27) 5가지 종성이란, 성문정성(聲聞定姓), 독각정성(獨覺定姓), 보살정성(菩薩定姓), 무성유정(無性有情), 부정성(不定姓)을 말한다.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모든 종자는 먼 옛날부터 (훈습으로) 이루어진다. 종자는 습기의 다른 명칭이고, 습기는 반드시 훈습에 의해 있게 된다. 꽃에 의해 훈습해서 삼[麻]의 냄새가 생기는 것과 같다.²⁸⁾

여기에서, 우리는 신훈설의 기본입장을 알 수 있다. 유루종자이든 무루종자이든 모든 종자에는 훈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훈종자’라는 것만 있고, 본래부터 존재하는 ‘본유종자’라는 것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즉, 먼 옛날부터 훈습을 하는 능훈처(能熏處)와 훈습을 받는 소훈처(所熏處)가 있어서, 이들의 훈습작용에 의해서 비로소 종자가 성취된다는 것이다.

신훈설의 입장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본유설과 반대로 신훈설은 전7식에서의 현행이 원인이 되고 제8식에서의 종자가 결과가 되는 인과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행이 종자를 훈습시킨다’는 것이다. 신훈설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경론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다계경(多界經)』과 『십대승론』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경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²⁹⁾ “모든 유정의 마음은 오염되고 청정한 모든 존재가 훈습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종자가 모여진 곳이다”라고 한다.³⁰⁾
- ② 논서에서 말하였다. ㉠“내부 종자(內種)에는 반드시 훈습이 있고, 외부 종자(外種)에는 훈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³¹⁾ 한다. ㉡또한, “명언 등 3가지 훈습에³²⁾ 모든 유루법의 종자를 전체적으로 포함한다. 그 세 가지는 훈습에 의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유루종자는 반드시 훈습에 의해 생겨난다. 무루종자가 생겨나는 것도 역시 훈습에 의해서이다. 문훈습(聞熏習)은 청정법계로부터 평등하게 흘러나오는 바른 법을 듣고 훈습되어 일어난다”고³³⁾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출세간심(무루심)의 종자 성품이기 때문이다.³⁴⁾

28) 『성유식론』(T.31, 8b06-09): 有義種子, 皆熏故生. 所熏能熏, 俱無始有, 故諸種子, 無始成就. 種子既是, 習氣異名, 習氣必由, 熏習而有. 如麻香氣, 花熏故生.

29) 『성유식론술기』권2말에 의하면, 이 부분은 『다계경(多界經)』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계경』은 하나의 독립된 경전이 아니라, 18계에 대해서 말씀한 모든 경전을 말한다.

30) 『성유식론』(T.31, 8b09-10): 如契經說, 諸有情心, 染淨諸法, 所熏習故. 無量種子, 之所積集.

31) 『십대승론본(攝大乘論本)』(T.31, 135b).

32) 명언종자(名言種子), 아집종자(我執種子), 유지종자(有支種子)를 말한다.

33) 『십대승론본』(T.31, 136c).

34) 『성유식론』(T.31, 8b10-15): 論說, 內種, 定有熏習, 外種, 熏習, 或有或無. 又名言等, 三種熏習, 總攝一切, 有漏法種.

①에 대해서는, 규기(窺基)의 논평이 있어서 소개한다. 규기에 의하면, 난타 논사는 위의 계경을 해석하면서, 오염되거나 청정한 모든 존재가 혼습에 의하지 않고도 한량 없는 종자가 모이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중시하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타 논사는 모든 종자가 신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 경문을 논거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³⁵⁾

②는 『섭대승론』에서 한 말씀이다. ㉑에서는 ‘종자에는 혼습이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놓은 구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내심(內心)과 같은 ‘내부 종자[內種]’에는 반드시 혼습이 있다고 한다. ㉒에서는 ‘유루종자와 무루종자 모두 혼습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구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루종자의 경우에는, “명언 등 3가지 혼습에 모든 유루법의 종자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니 의문의 여지가 없다.

3. 제3병유설

제3설은 병유설인데, 이설은 호법(護法, Dharmapāla) 논사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유식론』에서는 호법 논사가 주장하였다고 하는 병유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종자는 각기 두 종류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첫째는 본유종자이다. 이는 먼 옛날부터 이숙식(異熟識) 중에서 본래부터 존재하여 온 것으로, 온(蘊)·처(處)·계(界)를 일으키는 공능차별(功能差別)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 중략 …… 둘째는 시기종자(始起種子, 新熏種子)이다. 이는 먼 옛날부터 누누이 현행과 혼습으로 있게 된 것을 말한다.³⁶⁾

여기에서, 우리는 병유설의 기본입장을 알 수 있다. 병유설은 종자에 본유종자와 신훘종자가 모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본유종자’란 먼 옛날부터 이숙식 중에 본래부터 있어왔던 것으로서 ‘본성에 머문 종자[本性住種子]’라고 부른다고 하며, ‘신훘종자’란 먼 옛날부터 현행과 혼습으로 있게 된 것으로서 ‘혼습에 의해 성립된 종자[習

彼三既由，熏習而有。故有漏種，必藉熏生。無漏種生，亦由熏習。說聞熏習，聞淨法界，等流正法，而熏起故。是出世心，種子性故。

35)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T. 43, 305b).

36) 『성유식론』(T. 31, 8b23-29): 有義種子各有二類 一者本有。謂無始來，異熟識中，法爾而有，生蘊處界，功能差別。…中略 … 二者始起。謂無始來，數數現行，熏習而有。

所成種子]’라고 부른다고 한다.³⁷⁾

- ① 세존께서는 이에 근거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먼 옛날부터 갖가지 계(界)를 가지는데, 마치 악차 열매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고 하셨다. 나머지 곳에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인증하였으니 처음에 말한 것과 같다. …… 중략 ……
- ② 세존께서는 이에 근거해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마음이 오염되고 청정한 모든 존재에 의해서 혼습되었다. 그렇기에, 한량없는 종자가 모여진 것이다’고 하셨다. 여러 논서에서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오염되고 청정한 종자는 오염되고 청정한 존재의 혼습으로 생겨난다’고 하였다.³⁸⁾

여기에서, 병유설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론을 제시하고 있다. ①에서는 본유종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앞의 본유설에서 말한 것처럼, 『다계경』에서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②에서는 신훈종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계경』과 여러 논서에서 ‘오염되고 청정한 종자는 오염되고 청정한 존재의 혼습으로 생겨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³⁹⁾

Ⅲ. 소위 ‘[논란]’ 부분

논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효는 [논란] 부분에서 각설이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⁴⁰⁾ 우리는 「종자화쟁문」의 소위 ‘[논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역시 『성유식론』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성유식론』은 호법의 설을 중심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인지, 병유설

37) 양종자를 위(位)를 기준으로 구별해서 말하면, 호법은 10신 이전을 본유종자(性種性)이라고 하고, 10신 이후를 신훈종자(習種子)라고 한다. 『석원통초』(H.4, 315a07-12): 護法宗 具新舊二種 本有種子 名性種性 新熏種子 名習種性 約位分別 十信已前 名性種性 十信已後 名習種性 由前道理 性種在前 習種在後 참고.

38) 『성유식론』(T.31, 8b26-c02): 世尊依此, 說諸有情, 無始時來, 有種種界, 如惡又聚, 法爾而有. 餘所引證, 廣說如初. … 中略 … 世尊依此, 說有情心, 染淨諸法, 所熏習故, 無量種子, 之所積集. 諸論亦說, 染淨種子, 由染淨法, 熏習故生.

39) 遁倫(遁倫은 『유가론기(瑜伽論記)』에서 위의 3가지 설을 들고 있는데, 원측(圓測, 613-696)의 해석도 함께 실고 있다. 원측에 의하면, 위의 3가지 설은 각각 본말위론(本末爲論), 자성분별(資成分別), 극실위론(剋實爲論)이라고 한다. 『유가론기』(T.42, 486c-487b) 참고.

40) 김영일 2019: 57-76. ‘공격’이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방어’란 상대의 공격에 대항하거나 상대의 논지를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일방적으로 본유설과 신훈설을 논파(공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원효의 일반적인 화쟁 형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신훈설의 논란

먼저, 신훈설은 본유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본유설은 ‘훈습으로 종자를 증장시키기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점에 대해서 신훈설은, ‘전7식과 제8식은 서로 인연이 되어야 하는데, 훈습으로 종자를 증장시키기만 한다면, 전7식과 제8식은 서로 인연이 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며 본유설을 공박하고 있다.

만약 오직 본유종자 뿐이라면, 전식(轉識)이 아뢰야식(阿賴耶識)과 함께 인연의 성품이 될 수 없다.⁴¹⁾

이글에서, 신훈설은 앞으로 본유설을 논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요지를 선언한다. 즉, 만약 본유설의 주장과 같이 본유종자만 있다고 하면, 전7식(轉識)과 제8식[阿賴耶識]이 서로 인연이 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 ① 이는 계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모든 법은 장식(藏識)에 대해서/ 장식도 법에 대해서 역시 그러하네./ 다시 서로 결과의 성품이 되고/ 역시 항상 원인의 성품이 되네.” 이 계송의 의미는, 아뢰야식은 모든 전식과 함께 어느 때나 전전(展轉)하여 서로 발생하게 함으로써,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 ② 섭대승론석에서 말하기를, “아뢰야식은 잡염법과 함께 서로 인연이 된다. 비유하면 심지가 불꽃과 함께 전전(展轉)하여 타오르는 것과 같고, 갈대 묶은 다발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다.”⁴²⁾ 오직 이 둘에 의지해서 인연을 세우니, 그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는 인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만약 모든 종자가 훈습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식(轉識)이 아뢰야식과 함께 인연의 뜻이 있다고 하겠는가? (단지 훈습해서 증장케 한다고 해서 인연이라고 까지 이를 수는 없으니, 선업과 악업이 이숙과(異熟果)와 함께 인연이 된다고 말해서

41) 『성유식론』(T.31, 8c03-04): 若唯本有, 轉識不應, 與阿賴耶, 爲因緣性.

42) 『섭대승론석』(T.31, 328b).

는 안 되기 때문이다.⁴³⁾

이글에서, 본유설을 본격적으로 논파한다. ①에서는, 경전의 계승을 문증으로 제시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법’은 전7식을 말하고 ‘장식(藏識)’은 제8식을 말하고 있으므로, 제7식과 제8식은 서로 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 된다. ②에서는, 논전의 말씀을 문증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잡염법’은 전7식을 말하고 ‘아뢰야식’은 제8식을 말하므로, 역시 제7식과 제8식이 서로 인과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③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치’로 논파하고 있다. 즉, 본유설의 주장과 같이, 혼습을 통해서 종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단지 종자를 증장시키기만 한다면, 전7식과 제8식은 서로 ‘증상연(增上緣)’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서로에게 ‘인연(因緣)’은 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선업과 악업이 이숙과와 함께 증상연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인연은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⁴⁴⁾

또한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은 종자가 혼습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하니, 이는 모두 저 [본유설] 뜻과 다르다. 따라서 오직 본유종자라고 말하면, 바른 이치[理]와 가르침[教]에 위배된다.⁴⁵⁾

여기에서, 신흠설은 본유설에 대한 논박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주장을 재천명하고 있다. 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론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치로 따져서도, 본유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서, 종자는 혼습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공박한다.

2. 본유설의 논란

다음, 본유설은 신흠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신흠설은 ‘모든 종자가 혼습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루종자도 반드시 혼습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점에

43) 『성유식론』(T.31, 8c04-13): 如契經說, 諸法於識藏, 識於法亦爾, 更互爲果性, 亦常爲因性. 此頌意言, 阿賴耶識, 與諸轉識, 於一切時, 展轉相生, 互爲因果. 攝大乘說, 阿賴耶識, 與雜染法, 互爲因緣, 如炷與焰, 展轉生燒, 又如束蘆, 互相依住. 唯依此二, 建立因緣, 所餘因緣不可得故. 若諸種子, 不由熏生, 如何轉識, 與阿賴耶, 有因緣義. 非熏令長, 可名因緣, 勿善惡業, 與異熟果, 爲因緣故.

44) 인과동류(因果同類)인 경우에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선악업의 종자는 이숙과의 증상연(增上緣)에 불과한 것이지, 인연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45) 『성유식론』(T.31, 8c14-15): 又諸聖教, 說有種子, 由熏習生, 皆違彼義. 故唯有本, 理教相違.

대해서 본유설은 ‘만약 종자가 신훈종자뿐이라면, 무루종자는 발생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신훈설을 곤란하게 만든다.

만약 오직 시기종자(신훈종자)뿐이라면, 유위의 무루법은⁴⁶⁾ 인연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없어야 한다. 유루는 무루의 종자가 될 수 없으니, 무루종자가 유루종자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⁷⁾ 그렇게 되면, 모든 부처님에게 유루종자가 다시 생기게 되고, 선(善) 등의 종자는 불선 등의 종자로 되는 일이 생긴다.⁴⁸⁾

여기에서, 본유설은, 논박의 전체적인 취지를 선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즉, 신훈종자만 있다면, 무루법은 인연이 없어서 발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유루가 무루종자를 발생하게 한다면, 반대로 무루종자가 유루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처님에게 유루종자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 ① 분별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⁴⁹⁾ ‘심성은 본래 청정한데 객진번뇌(客塵煩惱)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잡염(雜染)이라고 이르며, 번뇌를 여의었을 때에 바뀌어 무루를 성취하므로, 무루법은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② 그런데, (여기에서) 심성(心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만약 공의 이치(空理)라고 하면, 공은 마음의 원인이 아니다. 상주하는 법은 반드시 일체법의 종자가 아니니, 본체가 진후에 전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中略 ……
- ③ (또한) 만약 유루의 심성이 무루라고 하면, 무루의 심성은 마땅히 유루이라고 하여야 하니, 차별된 인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⁵⁰⁾ 또한, 만약 중생심이 무루라고 하면, 곧 중생의 지위에서 무루가 현행하여, 성자(聖者)라고 일러야 할 것이다.

46) 유위의 무루란, 견도위(見道位)에서 비로소 일어나는 무루를 가리킨다.

47) 세제일법(世第一法)은 아무리 뛰어나도 유루이어서, 유루가 무루의 종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유루가 무루의 종자가 될 수 있다면, 반대로 무루종자로부터 유루가 생겨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48) 『성유식론』(T.31, 8c15-18): 若唯始起, 有爲無漏, 無因緣故, 應不得生. 有漏不應, 爲無漏種, 勿無漏種, 生有漏故. 許應諸佛, 有漏復生. 善等應爲, 不善等種.

49) 분별론자란 갖가지 사된 분별을 일으키는 사람들로써, 소승의 대중부나 일설부 또는 대승의 일부 사된 분별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50) 유루의 심성이 무루라고 하면, 무루의 심성은 또한 유루가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인연이 혼동되어서 도무지 논리가 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 ④ (또한) 만약 중생의 심성이 비록 무루지만, 모습이 오염되어서 무루라고 이르지 않는다고 하자.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곧 마음의 종자도 역시 무루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논서에서, 종자와 현행의 본성[無漏]과 모습[有漏]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생은 오직 무루종자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였겠는가?⁵¹⁾⁵²⁾

여기에서, 본유설은 신훈설을 본격적으로 논파한다. ①에서는, 앞으로 논파를 위해서 ‘유루법이 원인이 되어서 무루법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기 쉬운 명제를 제시한다. 그런 후, ②에서는 그 명제에서 중심이 되는 ‘심성(心性)’을 ‘공(空)’이라고 가정해 본다. 그렇게 하면, 공은 상주하는 법이라서 종자가 될 수 없어서 무루의 원인이 되지 못하므로, 그러한 가정은 성립하지 못한다고 논증한다.

또한, ③에서는, 심성이 원래 유루인데 이것을 무루라고 가정해 본다. 그렇게 되면, 중생의 지위에서도 무루가 현행하게 되어 성자(聖者)라고 불려야 하니, 그 가정도 성립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④에서는, 심성이 원래 무루인데, 모습이 단지 오염되어 있어서 무루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되면, 논서에서 ‘어떤 중생은 오직 무루종자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이 가정도 역시 성립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믿어야 한다. 모든 중생은 먼 옛날부터 무루종자가 있으며, 혼습에 의하지 않고 본래부터 성취되어 있다. 이후에 승진하는 지위에서 혼습해서 증장하게 될 뿐이다.⁵³⁾ 무루법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이 원인이 된다. 무루가 일어날 때에, 다시 혼습하여 종자를 완성한다.⁵⁴⁾ 유루종자도 이에 비추어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⁵⁵⁾

여기에서, 본유설은 신훈설에 대한 공박을 마무리하며 무루종자에 대한 자신의 입

51) 『유가사지론』(T.30, 615a).

52) 『성유식론』(T.31, 8c18-9a04): 分別論者。雖作是說。心性本淨。客塵煩惱。所染污故。名為雜染。離煩惱時。轉成無漏。故無漏法。非無因生。而心性言。彼說何義? 若說空理。空非心因。常法定非。諸法種子。以體前後。無轉變故。… 中略 … 若有漏心。性是無漏。應無漏心。性是有漏。差別因緣。不可得故。又異生心。若是無漏。則異生位。無漏現行。應名聖者。若異生心。性雖無漏。而相有染。不名無漏。無斯過者。則心種子。亦非無漏。何故汝論。說有異生。唯得成就。無漏種子。種子現行。性相同故。

53) 승진하는 지위[勝進位]란, 5위(位) 중에서 자량위(資糧位)를 가리킨다.

54) 무루가 일어날 때[無漏起時]란, 견도(見道)에 들어갈 때를 말한다.

55) 『성유식론』(T.31, 9a07-11): “由此應信。有諸有情。無始時來。有無漏種。不由熏習。法爾成就。後勝進位。熏令增長。無漏法起。以此爲因。無漏起時。復熏成種。有漏法種。類此應知。”

장을 재천명하고 있다. 즉, 모든 중생은 먼 옛날부터 무루종자가 본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루종자는 훈습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본래부터 성취되어 있는 것인데, 이후에 승진하는 지위에서 훈습해서 증장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무루법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3. 병유설의 논란

이제, 병유설의 논란이 시작된다. 병유설의 입장에서는 ‘이론상’ 본유설과 신훈설 모두에게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여기에서는 『성유식론』에서 병유설이 신훈설을 ‘공격’한 부분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훈설은 ‘오직 신훈종자만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병유설은, ‘본유종자도 있다’는 점을 논증하며 공박한다.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비록 내부 종자에 반드시 훈습이 있다고 말씀하였지만, ‘모든’ 종자가 반드시 훈습에 의해만 생겨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어째서 본유종자가 전혀 없다고 부정하는가? 그러나 본유종자도 역시 훈습에 의해 증성(增盛)되어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종자에 반드시 훈습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⁵⁶⁾

여기에서, 병유설은 신훈설을 논박하는 요지를 선언하고 있다. 즉, 신훈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내부 종자에 반드시 훈습이 있고, 훈습에 의해서 증성(增盛)되어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종자가 다 반드시 훈습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어서, 본유종자와 같은 종자도 훈습에 의해서 증성되어야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 ① 그 문훈습(聞熏習)은 오직 유루종자만은 아니다. 정법을 들을 때에 역시 본유의 무루종자를 훈습하여 점차 증성하게 해서, 전전하여 나아가 출세간의 마음을 일으킨다. 따라서 역시 이것(본유의 무루종자)도 문훈습이라고 이른다. …… 중략 ……
- ② 장애에 의해 증성의 차별을 세운 것은,⁵⁷⁾ ‘의미상’ 무루종자가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만약 전혀 무루종자가 없는 사람이 그 두 가지 장애(번뇌장·소지장)를 영원히 없앨

56) 『성유식론』(T.31, 9a11-14): 諸聖教中, 雖說內種, 定有熏習, 而不定說, 一切種子, 皆熏放生. 寧全撥無, 本有種子? 然本有種, 亦由熏習, 令其增盛, 方能得果, 故說內種, 定有熏習.

57) 『유가사지론』권52

수 없다면, 곧 그를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중성[非涅槃法姓]이라고 한다. 만약, 오직 2승의 무루종자만 있는 사람이 그 소지장의 종자를 영원히 없애지 못한다면, 일부는 성문중성이라고 하고, 일부는 독각중성이라고 한다. 만약, 역시 부처님의 무루종자가 있는 사람이 그 두 가지 장애의 종자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면, 곧 그를 여래중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루종자가 있고 없음에 의해서, 장애를 끊을 수 있고 없다는 뜻이 있게 된다.⁵⁸⁾

여기에서, 병유설은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흠설을 논박한다. ①에서는 종자 중에서는 신흠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훈습의 무루종자와 같은 본유종자도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훈습에는 유루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루종자도 있는데, 이 무루종자는 정법을 들을 때에 본유의 무루종자를 훈습하여 점차 증성하게 해서, 나아가 점차 출세간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②에서는, ‘중성차별과 관련해서 무루종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병유설은 『유가사지론』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중성차별은 무루종자의 유무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무루종자가 없는 사람, 이승의 무루종자를 가진 사람, 부처님의 무루종자를 가진 사람 등이 2가지 장애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5가지 중성의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이 여러 곳에서 본유종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들(신흠설)의 주장과 다르다. 따라서 오직 시기종자(신흠종자)뿐이라는 주장은 이치와 가르침에 위배된다.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모든 법의 종자는 각각 본유종자와 시기종자(신흠종자)의 2종류이다.⁵⁹⁾

여기에서, 병유설은 제기한 논란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주장을 재천명하고 있다. 즉, 여러 경론에서 본유종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신흠설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오직 신흠종자뿐이라는 신흠설의 주장은 옳지 않다

58) 『성유식론』(T.31, 9a14-28): 其聞熏習, 非唯有漏。聞正法時, 亦熏本有, 無漏種子, 令漸增盛, 展轉乃至, 生出世心。故亦說此, 名聞熏習。… 中略 … 依障建立, 種姓別者, 意顯無漏, 種子有無。謂若全無無漏種者, 彼二障種, 永不可害, 即立彼為, 非涅槃法。若唯有二乘無漏種者, 彼所知障種, 永不可害, 一分立為聲聞種姓, 一分立為獨覺種姓。若亦有佛無漏種者, 彼二障種, 俱可永害, 即立彼為如來種姓。故由無漏種子有無, 障有可斷不可斷義。

59) 『성유식론』(T.31, 9b05-07): 然諸聖教, 處處說有, 本有種子, 皆違彼義。故唯始起, 理教相違。由此應知, 諸法種子, 各有本有, 始起二類。

는 것이다. 결국 모든 종자는 신흠종자와 더불어 본유종자의 2종류라고 하는 병유설의 입장을 재차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⁰⁾

IV. 소위 ‘[평결]’ 부분

논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원효가 제설을 화쟁할 때에, [평결] 부분에서는 제기된 제설에 대해서 원효 자신이 스스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⁶¹⁾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한 「종자화쟁문」의 [입론] 및 [논란] 부분과는 달리, 우리는 소위 ‘[평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여의 『석원통초』와 견동의 『동이약집』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석원통초』의 인용문

균여는 『석원통초』에서 법장의 『화엄오교장』에 대한 주석을 하고 있는데, 제5장 입문해석(入文解釋), 제9절 소전차별(所詮差別), 제2항 명불종성(明佛種姓)에 보면, 본고에서 서술하는 논쟁에 대한 원효의 평결을 간략하게 인용하고 있다. 인용문의 처음에는, 이 논쟁에 대해서 원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판단의 요지를 선언하는 부분이 문답의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원효는 화쟁론에서 3분 논사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질문한다. “여러 논사에 의해서 말해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옳은가?” 대답한다.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여러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각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성립하였기 때문이다.”⁶²⁾

60) 이동우(2003: 175-181)는 혼습을 질적인 성장이라는 뜻의 ‘증장(增長)’과 양적인 성장이라는 뜻의 ‘섭식(攝植)’으로 구분한다. 그리하여, 증장만을 주장한 호월 논사의 성숙은 깊어지지만 하되 넓지 못하고, 섭식만을 주장한 난타 논사의 성숙은 넓어지지만 하되 깊이 못하지만, 증장과 섭식을 주장한 호법 논사의 성숙은 더없이 깊고 한없이 넓다고 평가한다.

61) 김영일 2019, 89-103.

62) 『석원통초』(H.4, 315a23-b03): 曉公, 和諍論, 引三師說. 問. 諸師所說, 何非何是? 答. 又有說者, 諸說皆是. 何以故? 各依聖教, 而成立故.

여기에서, 원효는 3분 논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3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성립하였기 때문에 ‘모두 옳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총3설 중에서 이미 어느 한 설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2설은 틀리다고 보기 쉽기 때문에, 원효의 이러한 말은 언뜻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원효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언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 ① 이 뜻은 무엇인가? 만약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作因受果之門]’에 의하면, 신훈종자가 바로 인연이 되는 것이니, 스스로 결과를 발생케 하는데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운운)
- ② 만약 ‘본성에 따라서 결과를 이루는 문[從性成果之門]’에 의하면, 오직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종자가 된다. (운운)
- ③ 만약 ‘화합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하는 문[和合生果門]’으로 나아간다면, 신훈종자는 비록 결과를 발생케 하는 작용이 있지만, 그 본성이 없으면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은 본성에 말미암기 때문이니, 본성이 바로 원인이 된다. (또한) 비록 본성이 있더라도, 만약 신훈종자가 없다면, 즉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능력이 있어야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니, (신훈종자가) 어찌 종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부문에 의한다면, 즉 마땅히, “2종자가 있어 함께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⁶³⁾

이글의 ①에서, 원효는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作因受果之門]’의 관점에서 제2신훈설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신훈이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장만 보아서는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과 ‘작용’이라는 말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아직은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②에서는, ‘본성에 따라서 결과를 이루는 문[從性成果之門]’의 관점에서는 제1본유설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이 문단에서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 문단의 내용만으로는 원효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 아래의 문단을 참고하면, 본유설이 옳다고 판단한 이유가 아마도 본유설에 주장하는 ‘본성’이 중요한 이유

(63) 『석원통초』(H.4, 315b03-11): 是義云何? 若依作因受果之門, 新熏種子, 正爲因緣, 於生自果 有功能故. (云云) 若依從性成果之門, 唯本性界 正爲種子. (云云) 若就合生果門者, 新熏種子, 雖有功能, 如其無性, 果即不生. 生果由性, 性即爲因, 雖有本性, 若無新熏, 即無功能. 功能生果, 豈非種子! 故依此門, 即當說云, 有二種子, 共生一果.

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는 하다.

③에서는, ‘화합하여 결과를 발생하는 하는 문[和合生果門]’의 관점에서는 제3병유설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신훈설에 말하는 신훈종자는 작용은 있지만 본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유설에서 말하는 본유종자는 본성은 있지만 작용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양자를 화합하는 관점은 양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어서 비로소 종자의 진정한 의미가 성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⁶⁴⁾

2. 『동이약집』의 인용문

견등은 『동이약집』의 제5장 건립熏습동이문(建立熏習同異門)에서,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해서 원효의 평결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인용하고 있다. 인용문은, 원효가 ‘위의 3설이 모두 옳다’고 선언한 부분은 생략되고, 그렇게 자신이 평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아가는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다. 먼저, ‘신훈설이 옳다’고 평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구룡화상(원효)은 말하였다. “만약,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作因受果門]’에 의하면, 신훈종자(新熏種子)는 바로 인연이 된다. 스스로 결과를 낳는데 공덕[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본성종자(本性種子)는 바로 결과의 법이어서 생기게 하는 본성은 되지만 결과를 낳는 작용은 없다. (그래서) 단지 결과의 본성이라고 이를 뿐, 작용이라고는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 문에 의하면 오직 신훈종자만 있지 본성종자는 없다. 저 신훈종자설을 주장하는 논사의 뜻은 이 문에서 얻은 것이다.”⁶⁵⁾

여기에서, 원효는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作因受果門]’에 의거하여 제2신훈설이 옳다고 평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 본성종자와 신훈

64) 균여는 『석원통초』에서 이점에 대한 범장(法藏, 643-712)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첫째 호월을 기준으로 하면 본성(本性)이요, 둘째 승군(혹은 난타)을 기준으로 하면 습성(習性)이며, 셋째 호법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고 넷째 연기는 모두 아니다”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넷째가 범장의 의견이라고 한다. 『석원통초』(H.4, 315b15-19): 章主十住品疏云 習性有無 一約護月 唯本性 二勝軍 唯習性 三護法 俱二 四緣起俱非已上 四緣起俱非 即是章主意故 異彼四說也

65) 『동이약집』(H.3, 709a06-12): 由如是義故, 丘龍和上云. 若依作因受果之門, 新熏種子, 正爲因緣. 於生自果, 有功德故. 彼本性者, 直是果法, 可生之性, 而於生果, 無有功能. 但名果性, 不名爲用. 故若依此門, 唯有新成[熏]種子, 而無本性種子. 彼新熏師意, 得此門也.

훈종자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바로 ‘작용[作]’이 있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바로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작용이 있는 신히설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본성을 따라서 결과를 이루는 문[從性成果門]’에 의하면, 오직 본성종자만이 바로 종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결과의 법이 스스로 본성이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신히종자의 경우에는 결과의 법이 스스로 본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에 의하면, 저 신히종자는 단지 본성종자가 혼습하게끔 할 뿐이지, 종자 자체가 되게 하지는 못한다. 오직 본성종자설은 이 문에서 얻은 것이다.”⁶⁶⁾

여기에서는, ‘본성을 따라서 결과를 이루는 문[從性成果門]’에 의거하여 제1본유설이 옳다고 평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본성종자와 신히종자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전자는 ‘본성[性]이 있다’는 점이고, 후자는 ‘본성[性]이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바로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본성이 있는 본유설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화합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문[和合生果門]’을 취하면, 신히종자는 작용만 있고, 그 본성이 없어서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그 본성에 말미암은 것이니, 본성이 원인이 된다. (또한) 비록 본성이 있지만, 만약 신히가 없다면, 곧 작용이 없다. 작용이 결과를 낳는 것이니 어찌 (신히종자가) 종자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 문에 의하면 곧 마땅히, ‘2가지 종자가 있어서 함께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신히종자와 법이종자가 함께 하나의 결과를 세운다’고 주장하는 논사의 뜻은 이 문에서 얻은 것이다.”⁶⁷⁾

여기에서는, ‘화합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문[和合生果門]’에 의거하여 제3병유설이 옳다고 평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신히설은 작용만 있고 본성이 없는 신히

66) 『동이야집』(H.3, 709a12-16): 若依從性成果之門, 唯本性界, 正爲種子. 以是果法之自性. 故新熏不作業法自性. 故約此門, 彼新熏習, 但[但]能熏發本性種子, 不能則成自體種子. 其唯有種子意, 得此門也.

67) 『동이야집』(H.3, 709a16-22): 若就和合生果門者, 新熏種子, 唯有功能, 如其無性, 果則不生. 生果由性, 性即爲因. 雖有本性, 若無新熏, 則無功能. 功能生果, 豈非種子! 故依此門, 則當說云, ‘有二種子, 共生一果.’ 其新熏法爾, 竝立一果師意, 得此門也.

훈종자만을 주장하고 있고, 본유설은 본성만 있고 작용이 없는 본유종자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병유설은 2종자의 화합을 주장하고 있다. 원효는 이 ‘화합’을 기준으로 보면, 화합을 말하는 병유설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 『석원통초』와 『동이약집』에서 인용한 『십문화쟁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종자화쟁문」의 소위 ‘[평결] 부분’의 일부로 추정되는 이 인용문들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본 인용문은 「종자화쟁문」의 소위 ‘[평결] 부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인용한 것일까?” 논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화쟁사례는 일반적으로 [입론]-[논란]-[평결]로 구성되며, [평결] 부분은 다시 원효의 전반적인 판단을 선언하는 ‘주문’, 그러한 선언을 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유’, 그 이유를 경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증’으로 구성된다.⁽⁶⁸⁾

그렇다면, 『석원통초』에서 인용한 부분은 [평결]에서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문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이약집』에서 인용한 부분은 [평결]에서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과 ‘문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인용문에서 3개문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문(門)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원효의 화쟁방법을 고찰한 박태원에 의하면, 문(門)은 ‘견해의 계열’ 혹은 ‘조건적으로 타당한 의미맥락’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문(門)’은 붓다의 연기법에서 출발하였는데,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의 사유방식을 거친 뒤에, 원효에 이르러 다양한 ‘문(門)의 사유’가 전개되었다고 한다.⁽⁶⁹⁾

그렇다면, 『석원통초』와 『동이약집』의 3문(門), 즉, ‘본성을 따라서 결과를 이루는 문’,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 ‘화합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문’ 등은 각각 ‘본성을 따른다는 맥락’, ‘원인을 짓는다는 맥락’, ‘본성과 원인을 화합한다는 맥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맥락 혹은 조건에서 볼 때, 본유설, 신훈설, 병유설이 ‘모두 옳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68) 김영일 2019, 89-103.

(69) 박태원 2017, 239-262.

V. 맺음말

지금까지 논자는 오늘날 온전한 형태로 전하지 않는 원효의 『십문화쟁문』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추정해 보았다. 균여의 『석원통초』와 견동의 『동이약집』을 보면 「종자화쟁문」의 핵심내용이 인용되어 있고, 『성유식론』을 검토해 보면 「종자화쟁문」에 등장한 것과 같은 내용의 논쟁이 등장하고 있어서, 논자가 이러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종자화쟁문」의 소위 ‘입론’ 부분에서, 총3설은 자신의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제1본유설에서는 종자에 ‘본유종자’라는 것만 있고, 훈습에 의해서는 종자가 증장(增長)될 뿐이라고 본다. 제2신훈설에서는 종자에 ‘신훈종자’라는 것만 있고, 먼 옛날부터 이어진 훈습작용에 의해서 비로소 종자가 성취된다고 한다. 또한, 제3병유설에서는 종자에 본유종자와 신훈종자가 모두 있다고 본다.

소위 ‘논란’ 부분에서는, 총3설이 타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훈설은 본유설에 대해서 훈습으로 종자를 증장시키기만 하면 전7식과 제8식은 서로 인연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논박하고, 본유설은 신훈설에 대해서 만약 종자가 신훈종자뿐이라면 무루종지는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공박하며, 병유설은 신훈설에 대해서 종자에 신훈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유종자도 있다고 논파한다.

소위 ‘평결’ 부분에서는, 원효가 본유설, 신훈설, 병유설 등 3설에 대해서 ‘모두 옳다’라는 판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본성을 따라서 결과를 이루는 문[從性成果之門]’에 의하면 본유설이 옳고,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문[作因受果之門]’에 의하면 신훈설이 옳으며, ‘화합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문[和合生果門]’에 의하면 병유설이 옳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끝으로, 본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종자화쟁문」의 내용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소위 ‘입론’ 부분과 ‘평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을 밝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소위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전후맥락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 점차 보완해 나아갈 생각이다.

약호

H: 韓國佛敎全書

T: 大正新修大藏經

1차 자료

『入楞伽經』	菩提留支 譯, T.16, No.0671.
『瑜伽師地論』	玄奘 譯, T.30, No.1579.
『菩薩地持經』	曇無讖 譯, T.30, No.1581.
『菩薩善戒經』	求那跋摩 譯, T.30, No.1582.
『成唯識論』	玄奘 譯, T.31, No.1585.
『攝大乘論本』	玄奘 譯, T.31, No.1594.
『攝大乘論釋』	玄奘 譯, T.31, No.1597.
『瑜伽論記』	遁倫 撰, T.42, No.1827.
『成唯識論述記』	基 撰, T.43, No.1830.
『大乘起信論同異略集』	見登 撰, H.03, No.0050.
『釋華嚴教分記圓通抄』	均如 撰, H.04, No.0059.

2차 자료

- 고영섭. 2007. 「원효 『십문화쟁론』 연구의 지형도: 조명기 · 최범술 · 이종익 · 이만용 복원문의 검토」, 『문학사학철학』 10(서울: 한국불교사연구소 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 131-165.
- 김영일. 2008.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340.
- _____. 2012. 「원효의 공유화쟁론」, 『한국불교학』 64(서울: 한국불교학회), 219-241.
- _____. 2013. 「원효의 『십문화쟁론』 「불성유무화쟁문」 검토」, 『한국불교학』 66(서울: 한국불교학회), 195-221.
- _____. 2015. 「원효의 불신화쟁론(佛身和諍論)」, 『대각사상』 23(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89-315.

- _____. 2019. 『화쟁사상』, 서울: 해안출판사.
- 김운학 1978. 「원효의 화쟁사상」, 『불교학보』 15(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73-182.
- 박태원 2013. 『원효의 십문화쟁론』, 서울: 세창출판사.
- _____. 2017. 「원효 화쟁철학의 형성과 발전: 문 구분의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90(경산: 새한철학회), 239-262.
- 오범안 1989. 『원효의 화쟁사상연구』, 서울: 흥법원.
- 이동우 2003. 「『성유식론』에 나타난 종자의 유래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33(서울: 한국불교학회), 165-183.
- 이만용 1983. 『원효의 사상』, 서울: 전망사.
- 이종익 2002.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서울: 예문서원), 229-272.

The Estimation on the Contents of Wonhyo's “Reconciliation of Dispute in the Aspect of Seeds” in *Reconciliation of Disputes in Ten Aspects*

Yeongil Kim

(Lecturer,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estimated the contents of Wonhyo's “Reconciliation of Dispute in the Aspect of Seeds” in *Reconciliation of Disputes in Ten Aspects* which is not handed down in a complete form today. What has helped the paper do so much is the *Seokwhaumkyobunki-wontongcho* (釋華嚴教分記圓通抄), *Daeseongkisinron-dongeeyakgip* (大乘起信論同異略集) and *the Discourse on the Theory of Consciousness-only* (成唯識論).

In the first section of ‘standpoint’, the three theories proclaim their basic position. The first theory states that there are only ‘the originally existed seeds’, and that they are only augmented by perfumation. According to the second theory, there are only ‘the newly perfumed seeds’, which are only achieved by perfumation. In addition, the third theory states that there are both ‘the originally existed seeds’ and ‘the newly perfumed seeds’.

In the second section of ‘debate’, we can see the three theories attacks each others. The second theory refutes the relation between the 7 consciousnesses and the 8th consciousness. The first theory criticizes

that the seeds of no agony will not be able to occur. The third theory debates the second theory saying, “There are not only the newly perfumed seeds but also the originally existed seeds.”

In the third section of ‘conclusion’, Wonhyo decides that all the three theories are right. The reason is that the first theory is correct under the condition of taking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nature, that the second theory is right under the condition of taking the outcomes according to the function, and that the third theory is true under the condition of taking the consequences according to harmonizing the two factors.

Keyword : Wonhyo, The Theory of Harmonization, *Reconciliation of Disputes in Ten Aspects*, Reconciliation of Dispute in the Aspect of Seeds, The Theory of Originally Existed Seeds, The Theory of Newly Perfumed Seeds, The Theory of the Two Kinds of Seeds.

2019년	9월 2일	투고
2019년	10월 7일	심사완료
2019년	10월 7일	계재확정